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와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창업교육의 열기와 규모적 성장세에 비해 정착 제대로 된 교육설계와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학술적 논리적 기반이 아직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이는 주로 창업교육이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부주도로 성장해 온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교육도 교육활동의 한 가지 유형인만큼 정통적 교육의 패러다임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과 기본적 구성요소를 토대로 하여 창업교육 특성을 반영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녹여 넣는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교육 시장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교육수요자, 교육공급자, 교육프로그램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며 교육 설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특수성을 일반 교육적 관점에서 비교해서 조명해보고 한국형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 교육, 창업교육, 창업교육 설계, 창업교육체계, 창업교육프로그램

I. 서론

창업교육의 열기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창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 대상 역시 청년창업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세대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렇듯 창업교육의 규모와 중요성은 날로 급성장하는데 비해 대부분의 창업교육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서 인지 정착 제대로 된 교육설계와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학술적 논리적 기반은 아직 취약하기 그지없다.

창업교육도 교육인 만큼 정통적 교육의 패러다임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과 기본적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창업교육 특성과 내용을 녹여 넣는 논리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물론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천방법론 설정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일반 교육의 설계와 방법설정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창업교육 대상범위와 적용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그래서 창업교육의 명문인 Bobson college의 경우에도 한 걸음의 법칙 (Just Start)이라는 추상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고 있다(Bobson, 2016).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추론 방식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기업가들의 남다른 행동방식인 ‘일단 시작하라. 단, 망해도 될 범위만 정해두고.’라는 추상적인 교육모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bson은 창업교육시장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교육수요자, 교육공급자, 교육프로

그램의 상관관계는 철저히 분석하며 교육을 설계하고 있다.

목영두·최명길(2012)은 대학의 창업교육 교과내용, 교과목 체계 및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 기초단계,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및 조직 단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한길식(2007)은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창업동기유발, 창업지식, 창업기술, 창업전략 및 창업성과의 통합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한 창업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반성식 외(2008)는 창업 MBA 교육과정의 모형과 교과구성, 세부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특수성을 일반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둘째,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의 환경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교육체계를 정리하여 셋째, 한국형 창업교육의 설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교육의 개념과 내용

2.1.1. 교육의 개념

교육(教育: Education)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의미한다.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구조의 수단이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

* 단일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bjeong@cau.ac.kr

· 투고일: 2016-12-30 · 수정일: 2017-02-19 · 게재확정일: 2017-02-25

전을 피하는 활동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6).

교육은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사이 등과 같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힘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선천적인 힘으로, 주어진 환경을 통해 스스로 창조적 가능성이 드러나고 개발되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천적 힘으로 성숙자인 부모·교사·선배 등이 이미 계획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 미성숙자들을 이끌며 가는 힘이다. 실제적으로 교육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自力)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他力)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성립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육’이라는 낱말의 뜻을 고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교(敎)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곳으로 이끈다’는 뜻과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육(育)은 ‘육성한다.’ 또는 ‘올바르게 자라난다.’ 등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성, 곧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보호, 육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조장시켜 자립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교육을 서구에서는 Education(영어), éducation(프랑스어), Erziehung(독일어), Paidagogen(그리스어)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 뜻은 모두 ‘끌어낸다(引出)’ 또는 ‘이끌어낸다(導出)’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의 뜻은 내부의 자연적 성장의 힘과 외부 영향력과의 합력(合力)에 의하여 성립되는 인간형성의 작용을 말하며,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을 바탕으로 하여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이루어 보려는 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의 여건, 교육학자 자신의 주의나 세계관·인생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내려진다.

<표 1> 교육철학자가 본 교육의 관점과 목적

교육철학자	교육관점	교육 목적
칸트 (Kant, I.)	도덕·인격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
슈프링거 (Spranger, E.)	문화와 지식	미숙한 사람을 자연(自然)상태에서 이상(理想)상태로 끌어올림. (문화의 번식활동)
듀이 (Dewey, J.)	생명과 생활경험	인간의 일상생활이며, 자유와 자연에 방임이 아니고 뜻있게 선택하여 조정하고 이상화하는 활동
루소 (Rousseau, J. J.)	개인주의 심리학	인간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조성 작용
페스타로치 (Pestalozzi, J. H.)	사회적 세계관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사회 개조에 기여
공자(孔子)	수기치인(修己治人) 내성외왕(內聖外王) 성기성물(成己成物)	유교의 가르침을 통한 를 통한 개인의 성숙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며 삶의 기법(techné)와 철학을 학습

자료: Cahn(1997); Spranger(1914); Bruehlmeier(2002); 신창호(2012) 재정리

이상주의자 (Idealism)이자 도덕적·인격적 면을 중시한 Kant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 보았다(Cahn, 1997). 이와 유사하게 문화와 지식 면에 치중한 Spranger(1914)는 비교적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자연의 상태에서 이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문화제를 통하여 유의적(有意的)·구체적·계속적으로 주는 문화작용으로 보아 문화의 번식, 즉 전달과 경신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실용주의자 (Pragmatism)이자 생명과 생활 경험면에 중점을 둔 Dewey는 인간 생명의 유한적이거나 창조적인 면과, 사회적 생명의 영속적이거나 전달적인 면이 합치되는 것이 인간의 전일적 생활이며, 이것을 자유와 자연에 방임해 두는 것이 아니고 뜻있게 선택하여 조정하고 이상화하는 것이 곧 교육이라 보았다. 사실상 교육의 사명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생물적 관점에서의 유한한 생명을 조화와 조정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교육은 기존 경험의 지속적 개조 과정이자 사회적으로나 실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Neil, 2005).

개인주의 심리학적 입장 (Realism)에 입각한 Rousseau나 Key는 인간의 자발자전(自發自展)을 위한 모든 조성 작용을 교육이라 보고, 개인의 발전은 자율적인 것으로서 교육은 다만 이 자율적인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하였다(Rousseau, 1979).

사회적 세계관을 가진 현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Pestalozzi는 교육을 사회의 계속적 개혁 수단으로 보면서, 의식적 자아나 자율적 개인의 완성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사회 개조의 측면을 중시했다(Bruehlmeier, 2002). 특히 그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서구 교육철학이 20세기 후반까지 지구촌을 지배하는 사이 이제는 동양의 전통 교육철학 역시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주로 유교(儒敎)와 불교(佛敎)와 도교(道敎), 그리고 무속(巫俗)과 같은 가르침이 주축이었던 동양사회에서 단연 유교는 교육 뿐 만이 아니라 동양사회의 모든 관습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창호, 2012).

유교는 스스로를 다스리며 이를 외연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정신과 물질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개인적 성숙과 사회적 배려의 조화를 추구한다. 한편 불교적 관점에서는 교육이 즐락동시(倅喙同時)의 인연, 즉 인간의 내외부적 역량의 조화로 깨달음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제각기 교육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올바른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하여 밝아야 할 과정과 그 과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사회개조를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 또는 구체적

지침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모든 교육활동·조직·운영은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방향은 궁극적으로 이상적 인간상을 형성하는 데 있다. 결국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이상적 인간상에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목적 및 가치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육목적은 극단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을 인정하고 과·지·덕·체 전면에 걸친 전인주의(全人主義)의 반영하며 무엇보다 개인과 사회적 조화 발달설 등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결국 교육목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목적하는 바가 달리 설정되어 왔으나 교육 그 자체가 정의하는 바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중세까지 서구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집단 전체의 권위와 이익·질서를 통하여 개인을 지배하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시대와 종교개혁 등의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권리가 계몽되고 권위로부터의 해방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8세기 계몽운동과 프랑스대혁명 등을 통한 시민혁명으로 발전되기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사회변혁은 자본주의의 형성의 토대가 되고 자유·평등·박애의 이념과 방향을 확산시킴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합리주의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교육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교육목적은 개인생활, 가정과 사회관계에서의 행복을 위한 기본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다.

2.1.2 교육의 내용

교육은 피교육자가 본래는 가지지 않은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달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가 유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끌어내는 활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이나 도덕과 같은 정신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등에 균형을 이루는 스스로 자립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교수(教授)는 교육대상에게 가르쳐주는 행위, 또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학습 촉진시키는 일이 된다. 교육의 내용은 경력교육이나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사원 교육, 각종 자격시험 교육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주에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자하는 기술내용, 학습자의 학습경험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구성요소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장소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교육의 주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교육자(Educator) 또

는 교사(Teache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이며 일반적으로 교사, 교수 등의 호칭으로 부른다.

교육의 객체: 교육을 받는 사람을 학생(Student) 또는 학습자(Leamer)라고 한다. 총괄적으로는 피교육자(Educatee)라 표현 된다. 피교육자는 즉,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통상 유아나 어린이, 미성년자 등 정신적 미성숙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이는 극히 편협된 사고이다. 물론 교육대상에 따라 유아교육, 아동 교육, 성인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과 같이 특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경우 자가 교육(Self-Education 또는 Autodidacticism)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장소: 교육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은 정규 학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을 의미한다. 가정교육은 부모형제 등 가족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정형적 교육 활동이다. 사회교육은 학교나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다. 그리고 인터넷등과 같은 다양한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원격 교육이라 한다.

개인이 교육에 의해서 보다 완전해지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인들로서 구성된 사회는 문화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교육자는 주어진 사회 환경으로부터 인품 수양에 필요한 문화를 접할 수가 없으며, 인격 형성에 필요한 자극이나 암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다 모든 사회는 바람직한 인품과 인격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교육 작용에는 개인형성과 사회형성의 두 측면이 있으며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Krieck(1922)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강조한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교육 작용은 의식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특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연장자가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지도 않으며, 사회가 존재하는 곳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사회 스스로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자연적,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회현상이자 사회적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2.2 창업교육의 개념과 내용

2.2.1.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에 대한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그 적용 대상에 따라, 창업교육 참가자의 창업 준비 수준과 단계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창업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관점에서 개인의 창업가적 태도, 정신, 문화 등을 창조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며, 개인의 창업 기술 또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벤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수의 성공적인 창업가들을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이며, 사회 전반에 창업가적 태도, 정신, 문화 등을 창조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다.

<표 2> 창업교육의 목적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개인의 창업가정신, 문화 등을 확산. 개인의 창업기술 또는 역량 향상.	새로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성공 창업가 배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사회 전반에 창업가정신, 문화 등을 확산

2.2.2. 창업교육의 내용

창업교육은 제품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개발과 시장에서의 사업성 기회활용을 통한 창업행위와 과정 그리고 창업후의 기업이 창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의 제품, 기술, 생산공정, 조직구조 등의 혁신과 개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의 내용(컨텐츠)은 다음과 같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헌배, 2016b).

<표 3> 창업교육내용의 구성체계

관점	적용대상차원	교육내용(컨텐츠)
미시적 관점	창업가와 창업프로세스	-창업가 특성과 자질, 태도, 성향, 창조성 개발 등 -사업기회의 포착, 아이디어 구성, 사업화 등 -실제 창업과정 경영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체계 구축 등
거시적 관점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국부(國富)창출: 정책, 제도, 지원방안, 패러다임 구축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유도 등

먼저 미시적 관점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가와 해당 창업가에 의한 창업 진행프로세스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창업가의 고유한 특성과 자질, 태도, 성향, 교육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사업성 기회 포착과 이를 아이디어화 및 사업화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실제 창업을 통한 경영행위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창업학이 창업가정신에 기초하고 창업가정신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인 정신, 행동, 과정이라고 볼 때 창업교육은 창조성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 인식과 포착, 사업화 능력 그리고 혁신적인 창업경영 분야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거시적 관점의 교육내용은 개인과 기업수준을 넘어선 국가경제적인 차원이나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려는 국가정책, 제도, 지원방안, 패러다임 구축과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유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가가 활동하는 시장 패러다임에 맞는 창업교육을 위하여 창업교육내용은 수요자인 창업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창업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업성 기회를 발굴에서부터 시장진입 이후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과 같은 한계적 상황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전략과 더불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영역 역시 창업교육의 중요한 내용(컨텐츠)이 될 것이다.

2.3 교육과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큰 범주에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교육과 창업교육의 정의와 목적,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과 창업교육을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육과 창업교육 비교

구분	교육	창업교육
정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
목적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 -만족한 개인생활, 행복한 가정과 사회관계, 그리고 실용성 있는 시민으로 준비	-창업가적 태도, 정신, 문화 등을 창조 또는 증가 -개인의 창업기술 또는 역량 향상 -새로운 벤처 및 일자리를 창출
구성요소 및 내용	-교육의 주체와 객체, 장소	-창업가와 창업프로세스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III.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천

3.1 교육의 설계와 방법 설정

일반적으로 교육설계의 출발점은 교육의 3체계(教育3體系) 즉,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3단계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도 하고 싶고 저런 교육도 하고 싶은 욕심을 정리해주는 선별논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따라 선택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교육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을 정하고 다음에는 「해야 될 교육」을 정하고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교육」의 순서로 교육프로그램들을 정리해 커리큘럼을 작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교육 설계의 내용은 선정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교육 방법 {강의방식인가, 토의방식인가 등}과 교재와 교육보조재 및 관련 자료를 점진 (문서인가, 시청각 교재인가) 강사의 선정과 교육을 언

제, 누구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으로 할 것 인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

1. 교육의 3체계설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 ○해야 될 교육 ○하고 싶은 교육 분류
2. 교육방법 결정
○강의 방식인가? ○토의방식인가? ○교육시간
3. 교육자료 점검
○교재 ○교육보조재 ○관련자료(문서, 시청각자료)
4. 교육진행 계획 확정
○강사선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등

<그림 1> 교육설계의 기본 패러다임

3.2. 창업교육의 체계: 수요자, 공급자, 프로그램

창업교육체계란 창업교육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창업교육 수요자와 창업교육 공급자가 존재한다.

3.2.1.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창업교육의 진행 계획이나 순서를 의미하며 창업교육의 수요자가 창업교육을 수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창업교육의 수요자에 따라 창업교육의 수강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 높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창업교육 수요자의 수강목적이 맞지 않다면 잘 설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창업교육 수요자의 수강목적에 맞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창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 대상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교수자들의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교수자들은 학습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주체이니만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열정과 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창업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이자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잠재 창업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동기를 자극하여 그들이 스스로 창업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게 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 재능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섬세하게 진행해야 한다. 교수자가 학습자를 중심으로 창업을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창업교육을 위한 일반적 교수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모형은 창업교육 대상, 창업교육 목적과 목표, 창업교육 콘텐츠, 창업교육 방법과 교수법, 창업교육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수자는 본인만의 창업교육 철학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교수자 스스로 창업이라는 긴 여

정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육자로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창업교육이 무엇이고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2.2. 창업교육 수요자

창업교육 수요자는 창업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이다. 창업교육 수요자에는 창업가, 학생, 교육자, 교육 관리자, 정부 관계자 등이 있다. 대기업은 창업주의 창업가정신을 토대로 창업가를 지원하고 창업 관련 회사들은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인큐베이터 등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들 역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수요자이다. 창업전문 학원, 창업가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거나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창업교육의 수요지이다.

창업가는 창업교육의 가장 확실한 수요자이다. 창업가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창업교육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창업 지원 자금을 받고자 하는 창업가들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창업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잠재적 창업가로 창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진로 중 하나로 창업을 받아들일게 된다. 창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창업가 마인드를 기르게 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관리자와 창업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기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정부공무원 역시 창업교육의 수요자이다.

3.2.3. 창업교육 공급자

창업교육 공급자는 창업교육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이 있고, 민간 기관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대기업, 창업 관련 회사, 프랜차이즈, 전문학원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교육을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창업교육이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3.3.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천

창업자의 능력, 사업아이템, 보유기술 등이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창업활동은 그만큼 실패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창업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창업자와 무관한 일반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손실로 전가된다. 창업을 무작정 장려 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창업,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적응 할 수 있는 “준비된 창업”을 점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이러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창업교육체계이다. 결과적으로 정밀한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3.3.1. 창업교육의 설계

1980년대 많은 연구들이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에 있어 프로그램의 트렌드에 집중했다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창업의 실제 프로세스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에 창업교육 설계의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창업교육의 설계방향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가 창업에 관한 ('about') 교육이다. 이는 주로 이론 지향적 교육을 강조한다. 창업과 창업가정신에 관한 인식을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창업을 진로의 하나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두 번째는 창업을 위한 ('for') 교육이다. 주로 실습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한다. 향후 미래에 학생들이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업을 통한 ('through') 교육이다. 실제 창업가들을 배출하고, 새로운 벤처 창업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개발시키는 교육이다.

3.3.1.1. Teaching 'about' Entrepreneurship Programs

창업에 관한 ('about') 교육은 하나의 현상으로써 창업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교육은 예비 또는 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이론과 철학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태도, 자세, 정신, 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처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 투자자, 일반 대중에 따른 창업가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게 된다.

창업에 관한 ('about') 교육은 창업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대변한다. 주로 창업가적 특질, 성향 특징, 경제적 성공과 관련된 주제들이 제시된다. 기회인식, 의사결정, 자원 획득, 아이디어 실행, 폐업과 같은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적 주제들이 다루지지만 실습과 직결되진 않는다. 오히려 각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이론과 창업가로서 갖춰야 할 마인드, 태도, 자세, 의무 등을 학습한다. 창업가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하기도 하며 기업 내 창업가정신, 사회적 창업가정신 등 다양한 창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부분이 강조된다.

창업에 관한 교육은 주로 교사가 지식 전달의 주도자가 되며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과 가깝다. 창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췄거나 또는 실제 창업가 등이 교사가 된다.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창업의 프로세스에 따라 각 주제별 지식을 전달받게 되며, 이러한 교육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딱 맞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초청 강사에 의한 특강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창업교육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사업계획서이다. 마케팅이나 재무 관리와 같은 전형적인 경영 관련 주제들이나 소기업 경영 과정도 흔히 활용되는 주제이다. 창업가의 특질에 관한 교육도 이 범주에

속한다. 성취욕구, 내적 통제 소재, 높은 위험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이 창업가의 특질로 다루지며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등도 다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창업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관찰을 하거나 묘사하거나 이해하고 예측하며 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어렵다.

3.3.1.2. Teaching 'for' Entrepreneurship Programs

창업을 위해 ('for')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창업가를 배출한다는 의미이다. 이 유형의 교육은 예비 또는 현 창업가들의 창업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사실 이것은 창업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기도 하며 동시에 “창업은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의 답이기도 하다. 이 유형은 스킬 기반의 접근법과 가깝다. 사업을 운영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창업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강조하며, 창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창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창업의 특성을 몸소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하거나 실패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방법, 플랜B 등을 이해시키는 것이 주요 콘텐츠의 핵심이 된다. 이론교육이 창업의 의무와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한 요인들을 강조한다면 실습교육은 창의성, 혁신, 영감 등을 강조한다. 실습의 주요 과정은 아이디어 창출, 팀빌딩, 비즈니스 계획, 잠재 투자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안내, 사업성장, 판매, 마케팅 및 네트워킹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이 유형의 창업교육은 자기주도에 의한 적극적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개념은 *learning by doing*과 실험적 교수 방법론이다. 교수나 전문가들에 의한 팀별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며, 네트워킹도 교수법에서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실제 창업을 시도해보거나 시뮬레이션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들이 행동하고 실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롤플레이(Role Play)”나 “나는 창업가이다”라는 가정 하에 시작된다. 실제로 자신의 창업 아이টে을 가지고 실제 창업을 경험하며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은 다음에 소개되는 유형과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이 유형의 교육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는 주제가 창업팀이다. 팀별 실습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업팀의 협력과 소통이 중시된다. 이 유형의 과정에서 최근 10년 사이 관심을 받은 교육이 디자인사고 교육이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D 스쿨, MIT 등이 대표적인 디자인사고 교육 현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및 다양한 기관에서 디자인사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3.1.3. Teaching 'through' Entrepreneurship Programs

창업을 통한 ('through') 교육설계는 앞서 설명한 교육내용의 종합판이다. 단지 창업을 위한 교육 ('for') 설계유형이 창업가를 가정할 실습 교육이라면 이 유형은 창업과 함께 ('with') 그

리고 창업을 통해 ('through') 학습자들이 진짜 창업을 경험해보는 교육컨텐츠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교육은 예비 또는 현 창업가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학습자들은 실제 사업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기술과 역량을 습득한다. 이 유형에서 권장하는 교육 방법론은 실제 투자가나 주주들에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피칭하거나 실제 창업가들과 함께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포함된다. 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이나 인큐베이터, 실제 고객들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수행해보는 인턴십,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현장실습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로서 스웨덴의 두 대학 (Chalmers and University of Gothenburg)을 찾아볼 수 있다. 두 대학은 과학자와 Ph.D. 연구원들 그리고 창업교육을 받는 학부생들이 함께 협동하여 창업기업이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과학자들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박사급 연구원들은 과학자들이 개발한 제품의 시장성과 독창성 등을 부여하는 등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개발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 좀 더 적합할 수 있도록 고객 니즈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호 협동지원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사업 자금도 같이 노력하여 유치하였다. 이 모든 과정들은 대학의 인큐베이터 담당인 멘토들이 지원하였으며 개인의 공헌에 따라 소유권의 비율이 결정되며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은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표 5> 창업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About 유형	For 유형	Through 유형
컨텐츠 및 맥락	창업가 자질 및 행동 특징 창업과 경제적 성공 창업 단계별 과정 창업가처럼 생각하기 기업과 사회 창업가정신 창업에서의 책임과 의무 창업과 연관된 위험	창업역량 및 기술 창업성공 자신감 강조 창업 단계별 과정경험 창의성, 혁신, 영감 강조 사업성장, 판매, 마케팅 예측 불가능한 창업 변화에 적응, 플랜 B 실패 예측 및 수용	멘토링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선 잠재투자자에게 사업참여 설득 인큐베이팅 과정
교수법	교사에 의한 지식 전달 수동적 학습 주입식 접근 초청 강사 특강 사례연구	자기주도 학습 실천을 통한 학습 팀별 교육 창업가들과 네트워킹	자기주도 학습 실천을 통한 학습 실제 창업을 통한 학습 투자자/주주대상 사업소개 실제 창업가들을 통한 교육

주로 활용되는 교육과정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창업마케팅 창업재무 소기업 경영/프랜차이즈 사례연구 전문가 강연	팀빌딩 (team building) 아이디어 창출 디자인사고 (기획인식/평가) 제품 개발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역할실습 (role playing) 네트워킹 (Networking) 판매(Selling)	인큐베이터 인턴십 멘토링 아이디어 피칭
교육결과	관찰과 묘사 이해와 설명 예측과 신념 결정과 수정보완	행동과 연습 실험을 통한 의사결정 문제해결 기회 잡기 의사결정에 반영	의사결정에 반영 문제 해결 투자 유치

자료: Piperopoulos & Dimov(2015); Sirelkhatim & Gangi(2015). 재정리

3.3.2. 창업교육의 실천

정부와 대학은 각각 창업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활용 자원과 활용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다. 실제로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천에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프로그램의 결합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에서는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 경영 교육차원에서 창업에 관한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주관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프랜차이즈 창업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창업교육 서비스의 공급체계는 취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설립된 창업대학원외에는 공인된 창업교육 전문가 배출기관이 없었으며 그나마 몇 안 되는 창업교육프로그램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 소재한 창업자의 활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교육과정은 1945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 베스터 (Vesper, 1987) 등과 같은 진취적 학자들이 기존 경영교육과 창업교육의 상이함을 지적함으로써 창업교육의 차별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밥슨 (Babson), 베일러 (Balyor), 하버드 (Harvard), 와튼 (Wharton)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이를 대학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창업교육의 특성화 발전을 선도하게 되었다. 특히 밥슨 (Babson College)이 설계·구현한 창업전 과정 (창업이론 습득과정), 창업시 과정 (창업준비과정), 창업후 과정 (창업후의 경영과정)의 3단계 영역으로의 창업교육설계는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체계이다.

물론 대학의 창업교과과정을 공통기초과정과 전공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설계하는 전통적인 교육설계방안도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높은 실정이다.

IV. 창업교육의 과제와 대책

4.1 우리나라의 창업교육 환경

창업환경요인이 통제가능하지 않는 한 “창업성공의 불문율”을 찾기는 어려우나 통제 가능한 요인은 분명히 존재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창업자가 이미 확인된 창업실패경험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거나 확인된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창업성공이나 실패사례를 “창업학”이라는 전문적인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으로나 실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창업 성공률은 분명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지향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은 효율적인 창업 성공 지원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에 적절한 여건이 주어 진다면 창업교육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대학은 가장 중요한 창업교육기관으로 활약하고 있음이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청은 국책 창업대학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9월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전국 10개 창업대학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학의 학문적 정체성 (Identity)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 하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창업대학원은 출범 초기부터 창업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실무중심, 현장 중심형 교육을 통하여 창업성공이라는 성과를 추구한다.”라는 중소기업청의 사업목표는 분명하였으나 정작 창업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대학 입안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주관적인 틀 속에서 설정되고 운용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정헌배, 2008).

특히 학문연구와 이론 교육의 현장인 대학에서 창업성공이라는 성과 지향적 교육의 결과물을 그것도 단기간에 보여주어야 하는 현실은 기존의 창업대학원 교육 조직과 인력으로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거의 모든 창업대학원이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비롯한 강사 및 교육자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창업교육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창업자양성과정과 창업교육전문가 양성과정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창업교육의 체계와 학술성이 부족하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하규수·여경은 2016).

4.2 창업교육 설계과제와 실천전략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천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 관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설계, 그리고 창업전, 후 상황은 물론이고 창업진행 과정 모두를 망라하는 전과정 (全過程)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학의 발전과 창업교육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적 수요를 함축할 수 있도록 이를 교육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교육 설계와 실천에 고려해야 할 전략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학의 적절한 응용이 필요하다. 창업교육은 창업과 교육의 접점이다. 그 동안 창업교육에서 창업에 대한 부분은 강조되었지만 교육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취약하였다. 하지만 창업교육도 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학의 다양한 모델과 이론을 응용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교수모델이나 학습유형 이론, 교육과정 모형 및 개발절차, 교육평가 모델 및 절차 등을 창업교육 설계에서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업에 대한 지식과 교육에 대한 지식이 균형적으로 통합될 때 더 발전적인 창업교육도 탄생될 것이다.

‘about’, ‘for’, ‘through’ entrepreneurship에 대한 균형적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각각의 교육 유형은 각각의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결코 더 중요한 교육유형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은 창업교육의 연구는 ‘for’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이 ‘about’이며 가장 적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through’와 관련된 교육 유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 유형의 장단점을 이론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비교 검증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에 적절한 교육유형이 균형적으로 배합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차원에서의 균형적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미국 밥슨(Babson College)에서 설계·구현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 수용되고 있는 창업교육 설계 방법인 창업전-창업시-창업후 과정의 3단계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교육설계 방법과 컨텐츠를 소기의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하고 고도화해야 하며 각각의 교육 컨텐츠 가치를 실증적으로 검증, 자료화하여 창업교육 설계에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창업학의 연구과제를 창업교육설계에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창업학이 창업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창업교육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창업학 연구자나 교육자는 물론이고 창업가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공통적 과제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창업교육 컨텐츠의 유용성을 정밀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정리 제시된 창업교육의 4개 부문(정헌배, 2016a)인 창업개념과 비전 부문, 창업프로세스 부문, 창업전략 선택 부문, 창업시장과 창업제도 부문 등에 대한 개별 교육컨텐츠의 유용성을 보다 정밀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창업교육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창업환경과 개별 사업부문에 대한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급변한다. 따라서 현시대 상황에서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창업교육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창업교육컨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업분야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다 전향적인 방향에서 창업교육의 주요 부문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특수성을 일반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한국형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인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창업교육 설계가 근간이 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술적이고도 논리적 기반은 아직 취약하기 그지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교육도 교육활동의 한 가지 유형인만큼 정통적 교육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고 창업교육 특성과 바람직한 컨텐츠를 실제교육에 녹여 넣는 전략적 준비의 필요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창업교육 시장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교육수요자, 교육공급자, 교육프로그램의 상관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며 이를 창업교육 설계에 반영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목영두·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 과정 개발 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 833-857.

반성식·이현숙·최상렬·정두식(2008), 한국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업 MBA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 3(2), 1-42.

정현배(2008),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KBR(구 경영교육연구)* 12(1), 109-128.

정현배(2016a), 창업학의 정의와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82-83.

정현배(2016b), *토탈창업학 이론과 실제*, 서울; 문영사.

하규수·여경은(2016),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221-231.

한길석(2007),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47, 370-4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16), *교육철학* Retrieved 2016.12.15 from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창호(2012), *동양의 교육철학 삶과 함께 호흡하다* 고대신문 2012.11.18.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602>.

Ban, S. S., Lee, H. S., Choi, S. L. & Jung, D. S.(2008), Development of Korean-typ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MBA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3(2) 1-42.

Bobson C.(2016). *Entrepreneurial Thought & Action: Act, Learn, Build*: Retrieved on December 20, 2016 from Bobson college Homepage www.bobson.edu.

Bruehlmeier, A.(2002) *In der Reihe "Basiswissen Pädagogik/ Historische Pädagogik"*, herausgegeben von C. Lost und C. Ritzi: Band 2 "Johann Heinrich Pestalozzi"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GmbH).

Cahn, S. M.(1997).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Y: McGraw Hill. 197.

Ha K. S. & Yeo, K. E.(2016), A Study on the Improving Training Progra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225-226.

Han, K. S.(2007), The Systematization Pla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Management Education Review*, 47, 370-405.

Jeong, H. B.(2008),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 Improvement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Business Review*. 12(1), 109-128.

Jeong H. B.(2016a), A Reflection on the Definitions and Research Tasks for the Startup Stud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82-83.

Jeong H. B.(2016b), *Total Start-Up: Theories & Practice*, Seoul; Moon Young Sa,

Krieck, E.(1922), *Philosophie der Erziehung*. Eugen Diederichs, Jena 1922.

Mok, Y. D. & Choi, M. G.(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25(2). 833-857.

Neil, J.(2005) *John Dewey, the Modern Father of Experiential Education*. Wilderdom.com. Retrieved 6/12/07.

Piperopoulos, P. & Dimov, D.(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985.

Rousseau, J. J.(1979). *Emile, or On Education*, trans. Allan Bloom. New York: Basic Books.

Sirelkhatim, F. & Gangi, Y.(201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urricula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Cogent Business & Management*, 2(1), 1052034.

Spranger, E.(1914), *Lebensformen. Halle (Saale)*, Niemeyer.

A Study on the Efficient Design & Practices for the Start-up Education

Heon Bae Jeong*

Abstract

In spite of magnificent growth of The startup education in terms of volumes and varieties, Theoric bases and logics of startup education design are not sufficient and vulnerable. The major reasons of these situations are caused not only by the facts that the startup education has been prepared by the governmental needs but also by the objective in short term perio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artup educations are also one of classical education itself, it should be adopted the proper education paradigm on its program design. Especially it should be considered of basic education component in startup education design such as education supplier (educator, teacher), education demander (student, educator himself) and education program. In this research, we has reviewed andn proposed efficient design direction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startup education programs.

Keyword: Education, Startup Education, Design of Startup Education, Development of Startup Education, Startup Education Program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hbjeong@cau.ac.kr